



26일 도쿄올림픽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 우승한 김제덕, 김우진, 오진혁이 일본 유메노시마 공원 양궁장 시상대에서 은메달, 동메달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양궁 전종목 석권 보인다

혼성·여자·남자 단체 금 싹쓸이 오늘부터 개인전 ... 금 5개 가능

이번엔 '형님들'이 한국 양궁을 올림픽 전 종목 석권의 6부 능선으로 끌어올렸다.

한국 남자 양궁 대표팀의 오진혁(40·현대제철)과 김우진(29·청주시청), 김제덕(17·경북일고)은 26일 일본 도쿄의 유메노시마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한국은 지금까지 치러진 혼성단체전, 여자단체전, 남자단체전 등 도쿄올림픽 양궁 종목 3개 금메달을 다 가져왔다.

이제 30~31일 결승이 열리는 여자·남자 개인전 금메달 2개를 가져오면 2016 리우올림픽에 이은 2개 대회 연속 전 종목 석권의 대업을 이룬다.

이번 대회부터 혼성전이 추가돼 처음으로 양궁 금메달 5개를 싹쓸이하는 새 역사도 쓴다.

전 종목 석권 목표를 향한 6부 능선을 넘는 셈이다.

혼성전에서는 김제덕과 안산(광주여대), 두 남녀 막내가 우렁찬 '파이팅!' 소리와 함께 금메달을

합작했다.

여자단체전에서는 강채영(현대모비스), 장민희(인천대), 안산 등 한 번도 올림픽에 출전한 적 없는 어린 공사들이 압도적인 실력을 펼쳐 보이며 대표팀의 두 번째 금메달을 따냈다.

이날 남자단체전에서는 막내 김제덕도 좋았지만, 오진혁과 김우진의 관록이 돋보였다.

김제덕에게 형님뻘을 넘어 '삼촌뻘'인 오진혁은 마지막 사수로 나서, 승부의 변곡점마다 10점을 쏘며 후배들을 든든히 뒷받쳤다.

개인전 금메달을 따냈던 2012년 런던 대회 이후 9년 만에 올림픽 무대에 선 오진혁은 양궁 역대 최고령 금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세계 최고의 공사로 인정받는 김우진은 첫 사수로 나서 명성에 걸맞은 활약을 펼치며 2016년 리우 대회에 이어 자신의 2번째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앞뒤를 든든히 지켜준 형님들 덕에 2번으로 나선 천재 사수 김제덕은 마음껏 활을 쏘았다. 일본과의 화살 거리까지 켄 슛오프에서는 결정적 10점을 날렸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오래 정상에 머문 두 베테랑

은 스스럼없이 농담을 주고받는, 위낙 친한 사이다.

'형님들'이 위낙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 준 덕에 이번 대회를 앞두고 처음 대표팀에 뽑힌 막내 김제덕이 쉽게 팀에 녹아들었다고 한다.

한국 양궁 올림픽 대표선수들은 한 팀이면서 결국 개인전에서는 '적'으로 만나는 운명이다. 당연히 미묘한 경쟁심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올림픽 남자 대표 선수들은 훈련 때 서로 자세를 체크해 주는 등 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회를 준비했다고 한다. 오진혁과 김우진의 후덕한 성품 덕이다.

단체전 금메달 하나만 바라보며 동고동락한 오진혁과 김우진, 김제덕은 이제 서로 적이 돼야 한다.

27일 시작해 31일 끝나는 남자 개인전에서 오진혁은 9년 만의 올림픽 개인전 금메달에 도전한다. 김우진은 첫 올림픽 개인전 우승, 김제덕은 3관왕을 노린다.

3명의 남자 태극공사는 시드가 결정되는 랭킹라운드에서 1~3위를 휩쓸어 준결승이나 결승에 가야 맞대결을 하게 된다.

/연합뉴스

한국 축구 “행운은 우리 편”

루마니아에 4-0 대승 ... 조 1위 “온두라스 꺾고 무조건 8강 간다”

김학범호의 8강 길에 '행운의 여신'이 미소를 지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한국 올림픽 축구대표팀은 지난 25일 일본 이바라키현 가시마시 이바라키 가시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루마니아와의 2020 도쿄올림픽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4-0 대승을 거뒀다.

앞선 1차전에서 뉴질랜드를 상대로 충격적인 패배를 기록했던 한국은 '행운'이 더해진 4점 차 대승으로 8강행에 청신호를 켜다.

한국은 오는 28일 오후 5시 30분 열리는 온두라스와의 B조 최종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8강 티켓을 가져가게 된다.

2차전씩 치른 현재 B조에서는 한국, 온두라스, 뉴질랜드, 루마니아가 나란히 1승 1패를 기록했다. 4골 차 승리가 한국을 1위로 올려놨다.

골득실차에서 +3점을 기록한 한국이 1위, 온두라스와 뉴질랜드는 골득실차 0으로 공동 2위다. 루마니아는 골득실차 -3이 되면서 4위다.

한국이 온두라스와의 최종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해도 뉴질랜드와 루마니아와의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조2위를 확정, 8강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전반 27분 행운의 자책골이 나왔다.

이동준이 오른쪽 측면에서 황의조를 향해 강한 크로스를 날렸고 이를 저지하려던 상대 수비수 마리우스 마린의 발에 걸린 공이 그대로 루마니아 골대를 파고들었다.

자책골에 환호한 한국은 전반 32분 바로 큰 위기 상황을 맞았다. 원두재가 상대 공격수를 피해 백패스를 했고, 공을 가지고 있던 골키퍼 송범근이 손으로 공을 잡는 실수를 했다.

간접 프리킥이 선언됐지만 다행히 프리킥이 송범근의 오른손에 맞으면서 한국은 실점 위기를 넘겼다. 그리고 전반 45분에는 상대의 '퇴장'이라는 또 다른 행운이 찾아왔다. 이은 게오르게가 이날 경기 두 번째 경고 카드를 받으면서 퇴장됐고, 한국은 후반전에서 10명을 상대로 싸움을 벌였다.

행운은 엄원상(광주)에게도 찾아왔다.

1-0의 아슬한 리드가 이어지던 후반 14분 페널티박스 바로 앞 우측에서 이동경이 묵직한 중거리 슈팅을 날렸다. 공은 상대 수비수 발에 맞은 뒤 중앙에서 기다리던 엄원상에게 향했다. 엄원상을 맞고 굴절된 공은 그대로 루마니아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 33분 황의조를 대신해 투입된 이강인은 확실한 해골사자가 됐다.

후반 39분 설영우가 얻어낸 페널티킥 찬스에서 이강인이 키커로 나서 원발로 가볍게 골대 왼쪽 구석을 뚫었다.

이강인은 후반 45분에는 강윤성의 패스를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멀티골을 장식했다.

앞서 열린 온두라스와 뉴질랜드 경기에는 온두라스가 3-2 역전승을 거뒀다.

한국은 기세를 이어 온두라스전 연승에 도전한다. 만약 조2위가 된다면 비기기만 해도 조1위를 확정하는 일본(승점 6·골득실차 +2)과 8강에서 '한일전'을 치를 수도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오진혁

“중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불혹의 오진혁, 흔들리지 않는 화살

아픈 어깨 부여잡고 금메달 투혼

“중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안 해서 못하는 거죠.”

마흔 살에 올림픽 금메달을 따낸 '중년의 명사' 오진혁(현대제철)은 대한민국 중년에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

26일 오진혁은 동생들인 김우진(청주시청), 김제덕(경북일고)을 이끌고 출전한 2020 도쿄올림픽 양궁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2016 리우올림픽에서 한국 남자 양궁에 사상 첫 개인전 금메달을 안겼던 오진혁이다. 그때 이미 오진혁은 30대였다.

다시 올림픽 무대에 설 때까지 9년이 걸렸다.

그새 오진혁은 중년이 됐다. 결혼해 금쪽같은 아들과 딸을 하나씩 가졌다.

수십 년간 지속해온 반복 훈련 때문에 오른쪽 어깨는 심하게 망가졌다.

그러나 오진혁은 활을 놓지 않았다. 아픈 어깨를 부여잡고 한 번 더 올림픽 무대에 서기 위해 훈련을 이어갔고, 결국 동생들과 함께 금메달을 합작했다.

시상식 뒤 믹스트존(공동취재구역)과 기자회견장에서 차례로 취재진과 만난 오진혁은 “어깨 부상을 계속 안고 훈련하며 통증을 견디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러나 계속하다 보니 익숙해졌다. 활을 계속 쏠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훈련했다. 어깨가 안 좋았지만, 경기에 못 나갈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오진혁은 대한민국 중년을 향한 응원의 말도 했다. 오진혁은 이번 우승으로 양궁과 한국 스포츠 사상 최고령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그는 “젊게 마음을 먹으면 몸이 젊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도쿄올림픽	
한국 선수 주요 경기 일정(27일)	
오전 9시 10m 공기권총 혼성 단체전 진종오·추가은, 김모세·김보미, 남태원·권은지, 김상도·박희문	오전 10시 43분 남자 200m 자유형 결승 황선우
오전 10시~ 여자 67kg급 16강 이다빈 남자 80kg급 16강 안교돈	수영 오후 7시 남자 100m 자유형 예선 황선우 남자 200m 평영 예선 조성재 자유형 계영 800m 예선 황선우·이유연·김우민·이호준
오전 10시 여자 에페 단체전 최인정·강영미·송세라·이혜인 자료/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대한체육회	양궁 오후 12시~ 남자 개인전 32강·16강 김우진, 오진혁, 김제덕 여자 개인전 32강·16강 강채영, 장민희, 안산
오후 9시 45분 여자 예선 2차전 한국-캐나다	배구 오후 9시 45분 한국-캐나다

/연합뉴스